



짜꿍 마을 어린이 도서관

#대전 중구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지원

마을에서 시작하여 마을과 함께 성장하다

주택가와 시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음 편히 갈 곳 없던 엄마들은 저금통을 깨고 사비를 모아 주민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대전 태평동 태평시장 부근에서 짜꿍마을어린이도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짜꿍마을은 마을 주민들과 같이 도서관 만들기 모임과 주민총회를 통해, 자원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 주민을 관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리하여 2017년 7대 관장까지 선출되었고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짜꿍은 ‘단짜’를 다정스럽게 이루는 말입니다

짜꿍마을어린이도서관은 마을에서 엄마와 아이들, 마을주민 누구와도 뜻이 잘 맞고 죽이 잘 맞고 친하게 지내며 늘 어울리는 편안한 사이가 되고 싶어 지은 이름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좋은 짜꿍을 만나야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듯이 마을에서도 짜꿍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을을 찾아 떠날 것 없이 나와 우리가 사는 태평동이 도서관과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 아이와 엄마와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마을이고 싶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짜깁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짜깁마을어린이도서관은 운영비를 후원과 운영위원 회비로 충당하다보니 정말 근근이 운영 되어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해야 될 도서관이 여름이면 전기료, 겨울이면 난방비 문제로 자원 활동가도 이용자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긴급지원 119를 통해 전기료를 지원받아 시원한 도서관이 되었으며 이용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땀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있는 것을 보니 관장인 제가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묵은 빛이었던 세금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개운합니다. 우리같이 비영리로 운영되지만 마을에 꼭 필요한 도서관은 운영비 문제로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비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짜깁마을어린이도서관은 비영리이고 자원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 해 동안 하는 활동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을축제, 도서관10주년 기념행사, 부모교육, 도서관 프로그램, 방학특별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들과 함께하는 사업 등 단 일주일도 여유로운 시간 없이 숨 가쁘게 활동합니다. 이런 활발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부족해 축소되고 위축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활동가들이 경제 활동 등으로 이탈하는 것도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마을에 사랑방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런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한해를 돌아보니 신임관장으로 출발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동시에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2017년에는 '복앤맘스'라는 책임 있는 엄마들 모임이 활발해지고 자원 활동가로 이어져 도서관에 젊은 활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루기도 했습니다. 관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러진 행사기도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서관을 지켜온 활동가로의 노고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던 자리였습니다. 개관식에 사회를 봤던 초등생이 대학생이 되어 진행한 사회를 시작으로 10주년 봉사상과 장기 후원상 등의 상패 전달식, 전 활동가가 함께한 플레



작공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8년은 어떠한가 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시뮬 댄스, 토크 콘서트,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이 한가지 씩 해온 음식으로 차려진 포트락파티까지 너무나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지쳐서 스스로 즐기지는 못했는데 10주년 기념행사는 참석자들이 같이 즐긴 행사여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해 바람이 있다면 지상으로의 도서관 이전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올해로 11년차를 맞는 도서관이지만 아직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있고 현판도 작아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도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이엄마들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서관이 지상으로 옮겨지고 공간도 분리되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아리활동 등 이용도 다양해지면서 태평동 주민의 편의 공간이길 소망합니다.

저의 도서관 활동 10년을 기억해보면 처음엔 이용자로 그리고 활동가, 사무국장을 거쳐 관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외국생활로 공백이 있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왜 도서관 활동을 계속할까?' 항상 의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급속한 산업화로 공동체가 깨지면서 우린 정말 예전보다 행복할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 마을의 소통공간이 생기고 아이들 또한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동네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생활 후 다시 연고도 없는 태평동을 찾은 건 도서관이 있고 이웃이 있어서입니다. 객지생활에도 고향을 찾고 밀리는 귀성전쟁을 치루면서도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갖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